

캐나다와 한국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현황과 과제



최지선

University of Waterloo,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Actuarial Science 박사과정

I·서론

저출산과 고령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금 제도에 있어서도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지속 가능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의 결과로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경제활동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 규모는 확대되지만, 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여금 수입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공적연금과 더불어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pension plan, 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DC)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사적연금 제도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두 제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관리하며 국가 및 사회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캐나다와 한국은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양국 모두 현재의 연금 제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 구조와 사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연금 재정의 압박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와 한국의 사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과 주요 과제를 분석하고 두 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향후 연금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개요

DB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퇴직 후 특정한 지급액을 보장하는 연금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연금 기금의 관리와 투자 수익률의 위험을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연금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근속 연수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사전에 계산되며, 직원은 고정된 연금 지급이 보장되므로 퇴직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직원에게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고용주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상황 악화나 투자 성과 부진 시 연금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DB형 퇴직연금은 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많은 기업은 이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고용주와 직원이 일정 금액을 연금 계좌에 기여하지만, 퇴직 후 지급액은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재정적 위험이 고용주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분산되며, 직원이 퇴직 후 받을 연금 지급액이 사전에 보장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매달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하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없으므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DC형 퇴직연금은 고용주의 재정 부담과 운영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최근 많은 기업이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직원은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퇴직 후 재정적 안정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직원의 금융 지식과 투자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III • 캐나다와 한국의 연금 제도 비교

위험 회피적인 기업 철학은 많은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플랜을 변경하게 했다. 이는 기업이 재정적 부담과 운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DB형

퇴직연금은 여전히 나이가 많은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와 장기적으로 함께할 것을 기대하는 직원, 그리고 고소득의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서 선호되고 있다. 이는 DB형 연금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여전히 특정 집단에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 캐나다 연금 제도의 가입 및 수령 조건

캐나다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이 여전히 인기가 있다. 이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캐나다의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여전히 DB형 퇴직연금을 주요 연금 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소득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주요 기반으로 평가된다.

둘째, DB형 퇴직연금은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월 소득 흐름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은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은퇴 후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의료연금제도(Healthcare of Ontario Pension Plan, HOOPP)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DB형 퇴직연금 지급액의 98%가 캐나다 내에서 사용되며, 이를 통해 160억 달러 이상의 노동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셋째, DB형 퇴직연금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개인의 안정성을 넘어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DB형 퇴직연금은 지속적인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연금이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주요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넷째, DB형 퇴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국립퇴직연금협회(National Institute on Retirement Security, NIRS)는 민간 부문의 연금 제도를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인하를 주장하며, DB형 퇴직연금의 잉여금 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법적 개선 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에서도 민간 부문의 DB형 퇴직연금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이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며,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의 기반을 제공한다.

나. 캐나다의 연금 제도 현황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규모 연금 기금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캐나다 연금 투자 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CPPIB)를 들 수 있다. CPPIB는 글로벌 시장에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며, 캐나다 연금 제도의 핵심 기반을 제공한다. 2023년 기준 CPPIB의 기금 규모는 약 6,323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9.2%를 기록했다. 이는 CPPIB가 장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CPPIB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주식 85%, 캐나다 국채 15%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 변동성에 대응하면서도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75년 동안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또한 확정형 연금(Defined Benefit, DB)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 연금 혜택 표준법(Pension Benefits Standards Act, PBSA)은 연방 관할 산업(은행, 통신, 항공 등)의 퇴직연금 계획을 규제하며, 최소 자금 적립 요건과 정기적인 재정 평가를 의무화한다. 이 법령은 연금 가입자의 퇴직 소득 보장을 강화하며, 연금 기금이 고용주의 자산과 분리되어 파산 등에도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한다. 또한, 연금 혜택 표준 규정(Pension Benefits Standards Regulations, PBSR)에 따라 연금 기금은 분산 투자와 위험 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정 자산군이나 발행인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제한을 둔다. 이를 통해 연금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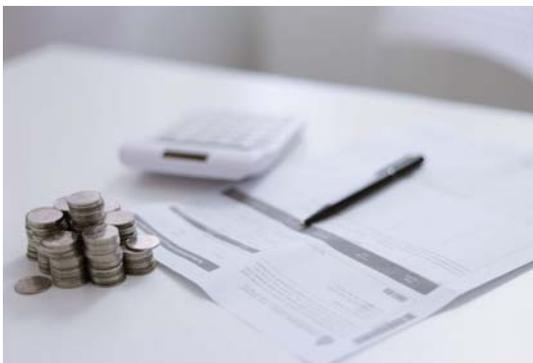
최근 캐나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연금 기금이 캐나다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30%)를 폐지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연금 기금이 더 유연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하여, 국가 경제 성장과 연계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캐나다의 모든 퇴직연금 플랜은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와 투자 성과를 보고하며, 이는 규제 기관과 참여자에게 공개된다. 이러한 투명성은 연금 기금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연금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는 참여자와 공공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나다 연금 제도는 대규모 기금 운영, 강력한 규제 체계,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CPPIB와 같은 기관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투자와 함께 캐나다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와 투명성 강화는 연금 제도가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한국의 연금 제도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3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였다. 제도 유형별로는 DB형 퇴직연금이 전체 적립금의 53.7%를 차지하며, DC형 퇴직연금은 25.9%,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20%로 뒤를 잇는다. 이러한 구성은 전통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국 연금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더 높은 투자 성과와 적립금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약 90% 가까운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수익률로 이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2023년 말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8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46.5조 원(13.8%) 증가하였다. 운용 방법별로는 원리금 보장형이 333.3조 원(87.2%), 실적 배당형이 49.1조 원(12.8%)을 차지하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구조는 연금 자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수익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퇴직연금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5.26%로 나타났다. 이 중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4.08%였으며, 실적 배당형 상품은 13.2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와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투자 위험에 대한 우려와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해 실적 배당형 상품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 다각화와 실적 배당형 상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운용 전략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라. 캐나다와 한국의 연금 제도 비교

캐나다와 한국의 연금 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상호보완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지만, 운영 방식과 구조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캐나다의 연금 제도는 공적 시스템(CPP)과 사적 연금(DB 및 DC 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며, CPP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제공한다. CPP는 강력한 투자 전략과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보장하며, 사적연금은 이를 보완하여 개인의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한다.

반면, 한국의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주요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제공하지만, 급여 수준이 낮아 퇴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을 보완하며,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높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의존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적립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캐나다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캐나다는

연금 기금의 효율적인 투자와 수익성을 통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안정성 위주의 투자 전략으로 인해 수익률 측면에서 한계를 겪고 있다.

두 나라의 연금 제도는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연금 제도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에서도 드러난다. 캐나다의 사례는 한국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연금 운용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안정성과 유연성을 결합한 새로운 연금 모델을 도입하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Ⅳ·미래 퇴직연금 제도의 전망과 과제

가. DB형 퇴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고령화 사회에서의 역할

DB형 퇴직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퇴직 후 소득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DB형 퇴직연금은 예측 가능한 소득 흐름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는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연금 수급자의 재정적 불안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은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경제 위기나 투자 성과 부진 시 연금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자금 충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DB형 퇴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 기금의 운용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캐나다 연금 투자위원회(CPPIB)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채택하여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CPPIB는 다변화된 자산 배분과 장기적인 수익률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연금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연금 기금의 최소 적립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지원을 통해 DB형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고용주와 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며,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DB형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도전 과제로 부상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전략이다.

나. DC형 퇴직연금에서의 투자 리스크 관리 및 개선 방안

DC형 퇴직연금은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소득이 결정되므로 투자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 제도에서는 직원이 자신의 투자 결정을 책임져야 하며, 이는 재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참여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정적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주와 규제 기관은 DC형 퇴직연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표기반 자산 배분(Target-Date Fund)과 같은 포트폴리오 옵션은 직원들이 자신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 위험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연금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 교육과 재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면, 직원들은 자신의 연금 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고용주는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다. 정책적 제언: 캐나다와 한국의 공통 과제와 방향성

미래의 연금 제도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AI와 빅데이터는 투자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화된 연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캐나다는 강력한 공적연금 시스템과 규제, 글로벌 투자 전략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DC형 연금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해 연금 수익률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의 강점을 참고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글로벌 투자 전략은 한국이 실적 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 다각화를 추진하는 데 귀감이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안정적인 구조는 캐나다가 일부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참고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두 국가의 협력과 정보 공유는 고령화 사회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